소 감 문

일 시 : 2013년 7월 3일 ~ 5일 장 소 : 대천 한화리조트 주 최 : 전북대학교 공학교육 거점센터, 공주대학교 공학교육 혁신센터	건축공학과 정아영

융복합 설계 캠프, 처음 들었을 때에는 그저 어렸을 때 가보았던 과학 캠프에 전공지식만 덧붙여서 참가하는 캠프라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융복합 캠프는 저의 생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부담없이 참가했었지만 KMEDC는 대학생들의 열정이 넘치는 진지한 곳이었습니다. 전국의 공과대학 학생들과 그리고 디자인과 학생들이 조를 이루어 뜻을 모아 아이템을 만드는 것 정말 융복합이란 단어가 적절한 캠프였습니다. 조편성이 되고 추첨을 통해 우리 조에 주제가 주어졌을 때 브레인 스토밍을 통하여 서로의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같은 공과대학이지만 다른 전공을 가지고 있고 그에 따른 서로의 의견이 달랐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낸다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주제에 어긋나거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버려야하는 아이디도 많았습니다. 여러 의견이 나왔고 각자의 전공에서의 견해와 주제와의 타당성 또한 창의성을 다 살린다는 것이 쉽지 않았고 고민고민하에 잠을 관리할 수 있는 DREAM CONTROL을 목표로 아이템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나오기까지 여러 가지 충돌과 기각이 있었고 그래도 우리 조는 서로의견을 존중하고 경청하면서 뜻을 하나로 맞추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다르게 생각할지라도 서로 양보하고 또 주장하면서 아이템을 구성해냈습니다.

아이디어회의가 끝나서 뭔가 잘되어가는 느낌이 들었고 순조로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작품제작을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생각하기만 했던 것을 직접 제작하려니 막막하였습니다. 주어진 재료가 과학상자 그리고 합판이나 우드락 같은 간단한 재료들이었고 그것으로 실물 모형을 만드는 것을 쉽지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때 이후로 만져보지 못한 꼬마전구나 작은 모터, 톱니 등을 가지고 하나의 작동장치를 만드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나하나 직접 만지면서 시작하니까 하나하나 만들어지고 원하던 작동은 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을 다 표현하기에 원하는 재료가 없고 대체할만한 시스템을 찾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원하던 시스템을 단순화하고 또 단순화하여 작업하였습니다. 마무리에는 디자인과 학생들이 라이노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을 만들어 이해를 돕고 발표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다함께 활동을 하였지만 서로 각자 맡을 역할을 열심히 하여 하나의 완성품이 나왔습니다. 뿌듯하기도 했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습니다. 발표 및 심사가 시작되고 떨리는 마음과 함께 저희 조의 발표가 끝났고 원하는 방향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심사가 끝나고 상을 받지 못해서 허탈한 느낌은 있었지만 캠프가 끝나고 나니 조원들과의 헤어짐이 아쉽기도 하고 조원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의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뿌듯함도 있었습니다. 또한 다른 과들과 함께 하나의 프로젝트를 하면서 서로 배우는 점도 많았습니다.

디자인과 학생들은 제품의 전체적인 느낌과 컨셉을 잡는데 탁월했고 기계나 전자과들은 회로나 동력원을 만드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저 또한 건축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었을 것

이라 생각합니다.

캠프에 참가하고 캠프가 끝나보니 다른 조의 잘한 점, 우리조의 아쉬운 점들이 눈에 보였고 탐나는 제품들도 많았습니다. 디자인에 중점을 두지 않고 공학적인 면에 많은 신경을 썼던 우리제품이 아쉽지만, 짧다면 정말 짧은 2박3일 시간동안 다같이 모은 아이디어로 결과물을 냈다는 것에 큰 의의를 둘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안 좋았지만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고 다음에 이러한 융복합 캠프에 참가했을 때에는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음에 캠프에 참가하게 된다면 많은 준비와 다방면에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습니다. 융복합 그 이름에 걸맞게 잘 설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캠프는 공학을 배우는 공학과 학생으로써 많은 경험과 도움이 되었고 편협한 사고를 넓힐 수 있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되고 캠프에 참가하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내년에도 이 캠프에 참가할 수 있다면 후배들에게 꼭 추천해주고 싶습니다.